

## ■ 2023년도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지원심의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1일 14:00~18:00
- 회의장소 : 서울 아트리움 호텔(종로) 컨퍼런스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성한, 윤동희, 이용식, 정혜윤, 최윤우

본 사업은 공연예술비평활성화 지원을 통한 공연예술계 담론 형성 기여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매체 발간지원, 비평연구, 학술행사, 디지털 활동 등 다양한 비평 활동을 지원하여 동시대 공연예술의 가치와 담론을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공연예술비평활성화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개인, 전문매체 발간, 학술분야를 포함한 전체 48건의 신청 사업 중, 필수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행정결격사업 6건을 제외한 총 42건의 신청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전수검토와 본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개인 비평 활동 지원으로 10개 사업(3천만 원), 전문매체 및 연구/학술행사 지원으로 총 19개 사업(2억 7천만 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년과 달리 올해 주요하게 변경된 사항으로는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완화, 활동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공정보상체계 정착을 위한 원고료 가이드 제시와 함께, 단체의 경우 자부담 10%가 의무적으로 적용된 바, 심의과정에서도 예산계획의 적절성 등 변경된 사업내용 역시 충분히 고려되었음을 밝힙니다.

주요 심의 기준으로는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필수 자료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실행역량의 전문성, 사업의 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본 지원사업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추진 예정인 사업의 구성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사업 실행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개인의 비평 활동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지속성과 구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전문매체의 경우 제시된 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의 확장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연간 사업으로서 예산계획 및 운영방향의 적절성은 물론, 해당 분야의 비평 활동을 확산하는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학술행사로 기획된 사업의 경우 신청주체가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위주의 사업은 아닌지, 사업내용이 동시대의 비평 담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인지, 참여자의 전문성 등을 주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의 향후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배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해

당 분야 전반으로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부분 역시 주요 심의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심의기준에 따라, 개인 선정자의 경우, 총 10개 팀으로 장르별로는 연극·뮤지컬분야 4건, 음악분야 1건, 무용분야 2건, 전통분야 2건, 다원예술분야 1건 선정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6건, 비수도권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연극, 뮤지컬, 무용분야의 신청건수가 높았던 반면, 전통예술과 음악, 다원예술분야는 전년과 유사하게 낮은 참여율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올해 개인분야는 창작과 공연형식이 다변화되고 있는 공연예술의 변화를 짚어내고, 다양한 표현양식에 대한 연구와 비평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문매체, 비평·연구 및 학술행사 부문은 총 19개 팀이 선정됐으며, 장르별로는 연극·뮤지컬 분야 4건, 무용분야 8건, 음악분야 4건, 전통예술분야 1건, 다원예술분야 2건이 선정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팀, 비수도권 2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문매체 및 학술분야는 정액지원을 받는 개인과 달리, 매체별 예산지원이 상이한 만큼, 신청한 사업예산의 적절성 및 장르별, 지역별 형평성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공연예술분야에서 비평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매년 새로운 창작방식과 다양한 공연형식이 발견되고 있고,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동시대의 예술적 흐름과 경향을 짚어내고, 새로운 도전과 실험적 활동을 목도하며, 예술적 담론을 확산시키는 비평분야가 활성화될 때 공연예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강화되기 위해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운영 방식이 필요하며, 지역별 형평성 또한 선정건수 비율보다는 가점 방식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특히 단체 유형의 경우 지속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만큼, 신규 사업 및 단체의 진입을 위한 개선 필요성 역시 향후 사업의 확산을 위해 더 깊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을 밝힙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의 사업을 통해 건강한 공연예술비평 문화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져 공연예술계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